



## 보건복지제도 Issue & Issue

### 4월부터 결핵 치료 본인부담금 50% 국가가 지원

● 질병관리본부는 획기적으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국가결핵관리사업을 2011년부터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결핵환자 발견 및 감염자 발견사업을 강화하고자, 민간의료기관의 전염성 결핵환자의 가족 등 밀접접촉자에게 결핵 및 결핵 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인당 최대 15만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다. 민간공공협력사업 의료기관(2011.4.1 시행) 실시 후 전국 확대(2011.6.1 시행) 또한, 결핵환자의 치료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며 (2011.4.1 시행), 전염성 결핵환자 중 치료 비순응자와 난치성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 등)에 대한 입원명령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과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다. (2011.5부터 시행예정).

###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9% 인상

● 보건복지부는 2011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되며,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초소득월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각각 12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300만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본인의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38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배우자는 227,270원, 자녀·부모는 151,49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1200원씩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79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원에서 9만 12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4천원에서 14만5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문의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 보건복지일자리 대폭 늘어 2년간 33만개 마련

●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 '2010년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 조사' 결과(한국통계진흥원 조사)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보건복지관련 산업체(35만 3천여개)의 종사자 수는 전년(174만 5,840명) 대비 22만 6천여명(12.9%)이 증가한 197만 1,871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산업 취업자 수 증가분 45만 5천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규 일자리 2개 중 1개가 보건복지관련 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인 셈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1년부터 2년간 33만개 내외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보건복지분야 '11-'12 일자리 창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의료시장 확대, 보건복지수요 증가, 기존제도의 성숙 등에 따라 26만여 개의 일자리가 증가(Natural Trend)하도록 하고, 신규서비스 제도화, 진입규제 완화, 제3섹터 활성화 등을 통해 7만여 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계획이다.

### 치매,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 가능

● '11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는 495천명(8.9%)이며, '30년에는 100만명, '50년에는 200만명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치매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02년 561억원에서 '09년 6,211억원으로 11배 증가하였다. 치매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록 의료비 및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경증일 때 보다 중증일 때 약 9배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환자 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정부는 발병률이 높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진단을 매년 확대 실시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60세 이상이 되면 보건소에서 간단한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위험 여부를 확인받아, 보건소와 연계된 의료기관에서 약 16만원의 비용이 드는 치매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금년에는 4만명의 대상자에게 무료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한다.